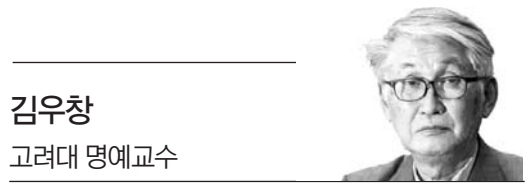


빠른 삶, 느린 생각

# 지구적 재앙 코로나 확산 속 되새겨보는 '메멘토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의 시련

국경·정파 넘어선 협력 당면

죽음을 기억하는 삶도 필요

정신 단련 훈련이 마음 열어

삶의 한계 돌아보는 명상으로

정신적 심화의 체험 되살리길

**#1**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상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끌여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소와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덮쳐 오는 침략자이고 수시로 모습을 변해가는 죽음의 사자(使者)이다. 그러나 그것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뉴스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는 하나, 대체로 보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한 상승세가 조금은 꺾이기 시작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 바이러스에 접하고, 감염되고, 또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거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수시로 바뀌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의 상황을 가지고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바이러스가 조금 늦게 창궐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국제적 비교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의 경우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큰 폭의 수치가 황당무계한 것만은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병의 역사로 보아 그러한 가능성도, 적어도 가설적 사고의 틀 안에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흑사병이라 불리는 역병은,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1348년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일어났다가 1년 이상을 지나서 가라앉았는데, 영국의 경우로만 보면, 그 역병에서 대략 600만 인구의 3분의 1 내지 반이 죽었다고 한다. 같은 역병은 그 후에도 수차례 반복되었다. (기이하게 이때의 흑사병도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설이 있다. 서양 근대문학의 큰 기념비의 하나인 '데카메론'은 1348년의 흑사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역병에 대한 국가적 반응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비가 없지 않은 대로, 다른 나라에서 평가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대응 조치는 정부가 주도하고 집권당에 의한 막대한 권력의 행사와 경제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하여, 대체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큰 반대와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일반의 동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 성향이 자유민주주의적이거나 사회민주주의적이거나 할 것 없이 이번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입장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문명국임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문명은 심미적 상상력의 역사적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회적 삶,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방향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합적인 정신적인 효과를 가지며, 삶의 현실을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포괄한다. 이 현실에 크게 엄숙성을 부여하는 요인의 하나는 삶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죽음이다.

## #2 죽음에 대한 명상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이 있다. 라틴어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중세 서구에서 정신적 수련에 있어서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집약하는 말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이 종말을 갖는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다른 의미는 삶을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의 지표가 된다는 데에 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뒤에는 이러한 모토를 든 노예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가 따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것은 세속적 자만심에 도취될 수 있는 개선 장군에게 겸허를 잊지 않게 하겠다는 로마인의 관습을 나타낸다.) 중세에 와서, 죽음은 신앙생활에서, 삶에 대한 여러 사고에서 그리고 문학과 예술적 표현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일상적으로 죽음의 기억은 탁자에 올려놓은 장식품으로서의 해골, 해골을 새겨 넣은 목걸이, 또는 해골을 놓아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으로 자취를 남겼다.

서구의 중세 문화에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소재였다. '명상(meditation)'을 실천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심화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는데, 죽음은 명상의 뼈통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 중세의 정신생활의 중심은 신앙이었는데,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익히는 것으로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앉아 생각을 집중하는 명상은 교리를 새기고, 그것을 심정에 배어들게 하고 다시 진리의 빛을 깨닫

게 하는 '정신훈련'의 방법이었다. (여기의 정신훈련은 중세의 가톨릭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신의 지침서가 되었던 이그나티우스 데 로욤라의 저작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이때 명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의 항목들인데, 그중의 하나가 죽음이었다. 죽음의 명상은 물론 삶의 한계, 죽음의 공포, 또 중세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저승의 고통,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구원에 대한 절실한 소망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해설에 의하면, 죽음의 명상은 궁극적으로 '공포'를 넘어 '사랑' 또는 '박애(博愛)'에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은화함과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가령, 하늘의 별들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일정한 궤도, 그 우주적인 질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러한 명상을 통하여였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상에 의하여 매개되는 초연한 마음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신의 질서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 열리는 평정된 마음이 은화한 마음, 사랑 그리고 과학적 관찰의 심리적 기초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체험을 통한 마음의 열림이 죽음으로 매개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죽음의 체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열림은 명상이라는 정신 단련의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체험이었다.

죽음 생각, 거리 두고 삶을 보기 위한 것

그러나 죽음은, 그것이 종교적 정신 수련을 동반하든지 아니하든지 잠재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죽음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식도 이러한 인간 현실과 심성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태도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간에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한시바빠 종료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삶의 심층에 들어 있는 숨은 힘을 상기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 침략의 대처 방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또는 전 인류가 처해있는 거대한 역사적 위기에는 조금 빛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에 말한 서양 중세의 정신훈련으로서의 명상과 같은 것은 수양과 교육 방법의 일부로서 존재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정보 그리고 단순화된 역사와 윤리 도덕의 지침을 강요하고 그 정서적, 정신적 심화의 체험을 등한히 하는 오늘의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서양 중세에 존재하였던, 그리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도 존재하였던, 명상적 자기 훈련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정치와 경제의 전체적인 테두리로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훈련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국가적 위기에서 국가적 참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김 동 일 쉼 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인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충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파세로운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풋젠광주센터**  
동구 금남로47차과옆전철역부근 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풋젠 자석 쿠션 신발  
☎ 062)232-6625, 010-3640-6625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심함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엄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석 당 화 랭**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비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 을 귀 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 대 화 랭**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원)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양초 판매  
☎ 061)334-008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박 당 화 랭**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